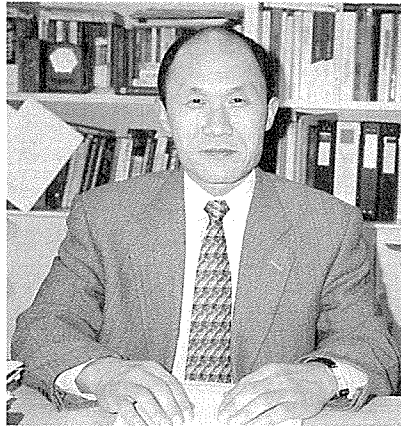


# ‘마이캐드’로 美시장 진출 (주)서두로직

주문형 반도체(ASIC) 및 반도체를 설계하는 CAD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서두로직은 미국 자이릭스사 등 세계 일류기업들을 상대로 판로를 개척한 유망 벤처기업이다. 직원 70명중 순수연구원이 35명인 (주)서두로직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MyCAD’를 탄생시키기 위해 22억원의 연구비를 쏟아 부었으며 국내 벤처기업을 세계시장으로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서두로직이 주문형 반도체(ASIC)와 CAD 전문생산업체로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ASIC과 CAD분야는 전자공학과나 공대를 전공한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사용해본 S/W로 설계 자체가 어려워 국내 자체기술 개발은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한양대 전자공학과 출신인 유영욱(柳泳昱, 52세)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등에서 14년간 근무한 전문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유사장은 1982년부터 85년까지 3년간 실리콘 벨리 내에 자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미국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미국 전자산업의 메카 실리콘 벨리. 바로 이 곳에서의 3년이라는 세월이 유사장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 때부터 유사장은 늘 실리콘 벨리를 외치면서 생활하고 있다. 자신에



▲ 앞으로 3년 뒤에는 NASDAQ에 상장시키겠다는 유영욱사장의 각오가 확고하다.

찬 목소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다소 들뜬 분위기가 (주)서두로직 유영욱사장의 첫 인상이다.

## 미국 최대회사와 기술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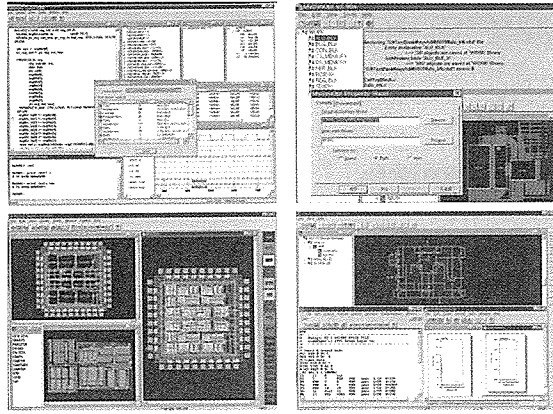
“한국이 2000년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했을때 선진국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업이 뭐겠습니까?”

“환경규제에도 걸리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우수

한 두뇌를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지금 바로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한창 진행중인 최첨단 전자산업입니다” 그래서인지 1990년 4월 창업한 (주)서두로직은 시장 개척에도 매우 독특한 방법을 썼다. 국내 전자산업을 뒤로 한 채 반도체분야의 신화적 존재인 인텔사를 비롯, ASIC 전문 생산업체인 美 자이릭스사 등 세계적 일류기업들을 상대로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사장은 수십년에 걸친 연구경력과 기술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3년간 실리콘 벨리에 살면서 CAD에 대한 세미나와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면서 정보사냥에 거의 필사적인 독특한 현장경험도 있다. 그리고 ASIC과 CAD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를 내미는 열성을 보였다. 하지만 (주)서두로직이라는 회사명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MyCAD’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미국 시장에 내놓았을 때는 마치 아프리카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선보이는 것 같은, 우리 기술을 무시하는 그네들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한다. 유사장은 우리 기술을 의심하는 소리를 3년 전까지도 들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우직하게 이 분야에서 뚝심을 발휘, 드디어 유사장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사에 ‘MyCAD’ 10개를 공급했다. 아직은 국내용이라는 벤처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물꼬를 서두로직이 터주는 순간이었다.

서두로직이 사활을 걸고 자체개발한 ‘마이캐드’는 전자, 전기, 통신, 제어 컴퓨터 등 오늘날 거의 모든 전자정보통신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 전자설계프로그램이다. 더군다나 아직은 EDA(전자설계자

동화) TOOL이 거대한 워크스테이션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반하여 '마이캐드'는 당초부터 윈도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최근 컴퓨터산업의 추세인 (Workstation→PC, DOS→WINDOWS)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마이캐드'는 크게 VHDL, Logic, Analog, IC Chip,



▲ 「My CAD Version 2.5 too」

PCB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툴세트(tool 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이캐드'는 한국통신, 현대전자, LG산전, ETRI, 시스템공학연구소 등에 보급되어 있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 전국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또한 '마이캐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이캐드 각종 툴의 교육용판을 서두로직 Web Page에 올려놓고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VHDL시뮬레이터는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현재 5백여명이 download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 직원 70명중 35명이 연구원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주)서두로직은 각 경제신문에서 거론되는 유망 벤처기업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돼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주)서두로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이 70여명에 이르는데 이중에 순수연구원만 35명 정도가 된다.

이들 연구원중 15명은 KAIST와 ETRI에서의 연구경력이 있고 이외에도 서강대와 한양대, 국내 공학도들 중에서는 내노라하는 고급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다 '마이캐

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유사장은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었다. 이와 함께 유사장 즉, 경영자의 의지가 듬뿍 담겨져 있다.

단일 S/W연구로 이렇게 막대한 인력과 연구비를 투자한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내 최고의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뭔가 사건이 터지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유사장이 연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 “아마추어는 필요없어요”

“우리는 아마추어는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 프로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학도는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벨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스탠포드나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게 아닙니다. 실리콘 벨리라는 또다른 현장에서 5~6년간 다시 연구경력을 쌓습니다. 비로소 현장경험을 갖춘 프로가 되거죠.”

“우리나라 연구원들도 자꾸 해외에 내보내야 합니다. 정통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년에 만달러를 지급, 백명씩만 내보낸다고 해도 10억

원입니다. 이것을 5년간 한 다해도 50억 밖에 들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계 최고의 현장에서 그네들이 무얼 하는지만을 보고 돌아온다고 해도 국내에 미칠 그들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유사장은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가며 설명했다. 실제로 한달에 한번

씩 해외에 나가고 앞으로는 반년을 해외에서 보낼 작정이라는 유사장은 본인이 실리콘 벨리 내에 있을 시절 그 곳에서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 본인과 같이 세계로 눈을 다시 뜨는 젊은이가 많이 나와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한다. 이미 1994년에 미국 실리콘 벨리 내에 'My Cad Inc.'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명실공히 서두로직은 세계 굴지의 반도체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을 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6억원, 올하는 그 두배인 65억원이 목표다. 돈에 관한 한 아직은 욕심을 내고 싶지 않다는 유사장은 70여명의 직원이 연구비로 뚝 때놓은 나머지 금액은 밥먹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참고 견딘다고 한다.

유사장의 해외로의 진출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국 현지법인인 'My Cad Inc'를 3년 내로 미국의 증권시장인 NASDAQ에 상장시켜 국내 벤처기업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낼 각오라고 피력했다. ④7

하정실<본지 객원기자>